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印刷人 金炯進(?)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十一番地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社說

廣田內閣의 前途
—往日되는國策樹立과 陸相態度—

一

廣田內閣이 成立된지 벌서 五個月에 亘하얏다。그間 非常時特別議會가 지나가고 二·二六事件에 對한 責任者의 處分이 執行되고 遂하야 戒嚴令의 解除를 보아 廣田內閣으로서는 크나큰 難關을 메웟다고 지낫다。特히 今次의 陸軍異動을 끗내면 二·二六事件後 慌忙히 出現한 廣田內閣의 使命은 거이 다햇다 할수잇다。벌서부터 寺內陸相의 引退說이 傳하고 딸아 廣田內閣의 更迭說이 傳함은 全然 想像만의 浪說이라 할수는 업다。

二

廣田內閣은 當初 陸軍과 國防充實과 國民의 生活安定과 및 外交 特히 對蘇中外交의 刷新等 庶政一新을 標榜하고 出現하얏다。그러나 陸軍을 除外에는 別로 神通한 實績을 남기지 못하얏다。國防充實을 爲한 五十億圓의 軍事費의 計上은 되엇스나 이것을 實行할만한 財源에 對해서는 藏相으로부터 何等 責任잇는 保障을 안하얏스며 特히 國民生活安定에 關한 政策은 거이 無抱負의 狀態다。退職金 積立法案의 通過와 低金利의 實現이 唯一의 國民生活 安定策이라 하지만 이것이 얼마만한 效果를나타낼가는 아직 疑問中에 잇다。馬場藏相의 增稅案은 就任初日부터 發明하얏것만 이러타할 具體案을 보지 못하고 그 輪廓이라 할만한것을 보면 大衆課稅로서 國民의 生活安定問題와는 背馳되는 內容을가젓다。

그박게 庶政一新이라 할만한 各省의 洪水的 國策은 거이餘地업시 脫落되어 義務敎育年限延長案을 提唱한 平生文相은 進退의 難局에까지 이르럿거니와 現內閣의 統制經濟의 唯一의 자랑인 電力國營案도 島田農相의 反對가 잇고 民間業者의 反對가 잇서 또한 難關에 逢着하얏다。

三

廣田內閣이 이러한 難關에 逢着할것은 出現當時부터 豫測햇든바다。廣田內閣은 그 閣僚의 構成分子로 보나 出現된 事情으로 보나 果敢한 政策을 實現할수는 업다。西園寺公이 廣田首相을 奏薦한것은 政局에 急激한 變化를 生치 말게하자는 意思요、廣田內閣이 閣員名簿를 作成할때 그 閣員을 銓衡한것도 急激한 思想의 所持者가 아닌것을 主眼으로 삼엇다。그러하야 官僚、政黨出身等으로 物色하얏스니 이들이 軍部等에서 생각하는바와가튼 急激한 政策을 쓰지못할것은 明若觀火한것이 아닌가。政黨이 이것을 實行할 意思는잇서도 資本家의 反對를 물리치고 斷行할 勇氣는 업다。그리하야 軍部 對 政府間、政府閣僚相互間 及政府對民間에는 完全한 步調를엇지 하얏스니 寺內陸相이 그軍部、政府의 中間에 끼여 苦境에 立하고 平生文相及 賴母木遞相은 各各 閣僚、資本家의 反對로 進退維谷에 處하지 안헛는가。

四

寺內陸相은 就任條件으로 四大案件을 提出한바 잇섯거니와 이제 그 條件들이 圓滑히 實現되지 못하매 庶政一新을 못할 閣僚는 나가달라는 말을 하야 廣田內閣의 危險信號를 하얏거니와 오는 國策會議에서 閣僚間의 不統一이 잇서 豫期한 庶政一新案이 實現되지 못하면 陸相은 引退를 決하지 안흘가。그리되면 平生文相、賴母木遞相의 進退問題와 아울러 現內閣에는 一大致命傷이 되고 또한 廣田內閣의 運命에까지 進展하지 안흘가。오는 國策會議야말로 廣田內閣의 運命을 決定할 重大契機라 할것이다。

과다라마嶺陷落?
政府軍에 大打擊
『政權掌握後엔 對佛國交斷絕』
叛軍側은 成功을 確信

【巴里發電】西班牙內亂의 情報는 區區하야 眞相을 捕捉키 困難하거니와 에미사·모라將軍麾下의 叛軍北軍은 首都마드리드市의 北門 과다마라嶺을 完全히 占領하엿다고 傳한다 但 南軍部隊는 共產黨員의 게릴라戰術에 防害되어 進軍이 뜻대로되지안는 北軍도 首都를 指呼間에 俯瞰하면서 南軍進出을 기다리고 잇는모양이라고한다 右翼『라·리베라』紙의 카사브앙카特電에 依하면 數日에 亘한 과다마라嶺의 決戰에서 政府軍死傷은 叛軍의 三倍에 達하엿다고 報道되엿다 叛軍의 武將 쿠에이브將軍은 叛軍의 成功을 確信하고 二十七日 新聞記者에게 對하야 如左히 言明하엿다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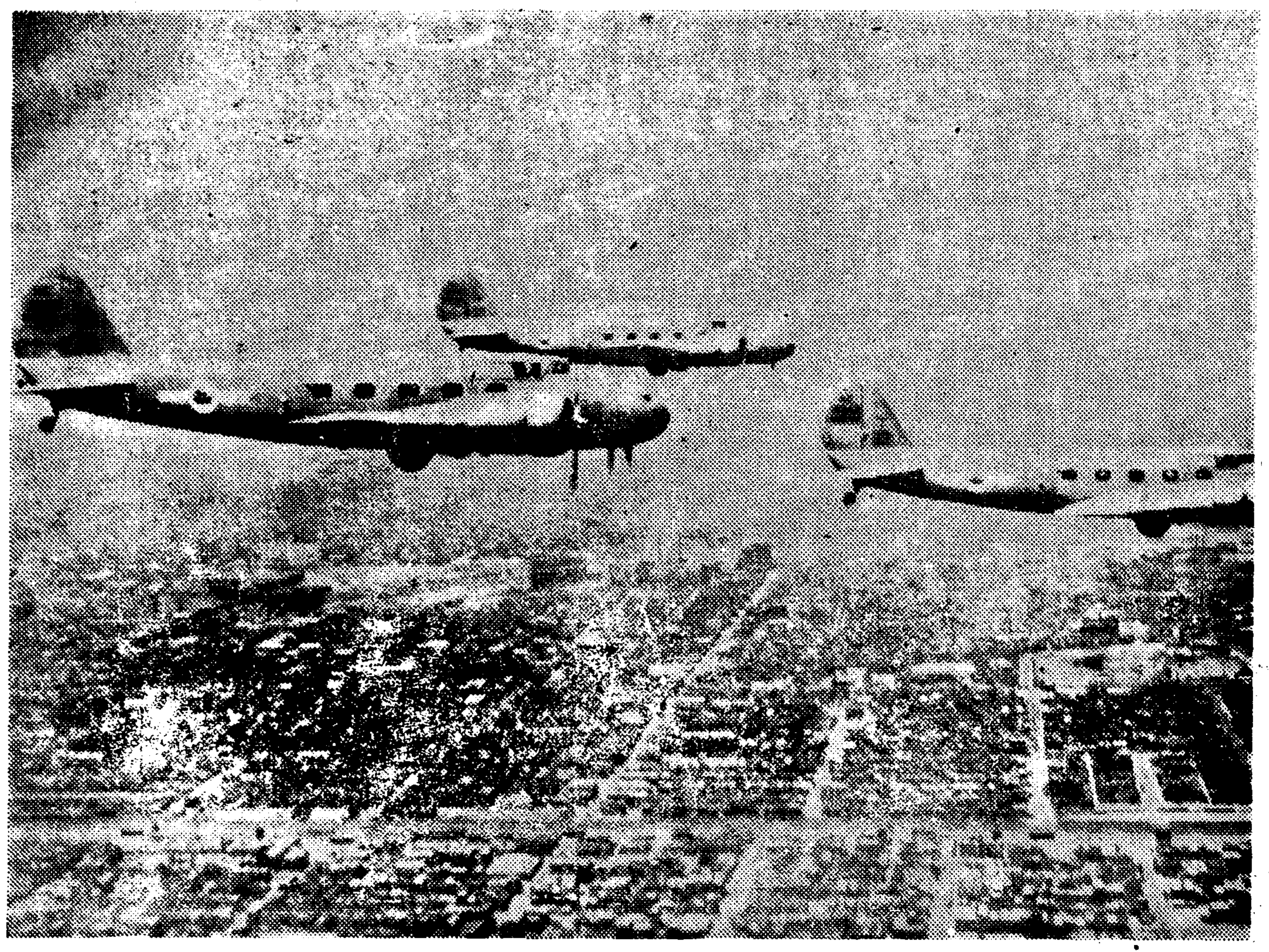
과다마라嶺을 占據한結果 叛軍의 成功은 事實上 確保되엇다 佛國政府가 西班牙左翼現政權을 支持하고 잇는것은 言語道斷이다 佛國政府가 軍用機 其他의 軍需品을 西班牙政府에 供給한結果 叛軍은 多大한 損害를 바덧스나 叛軍이 한번 政權을 把握하게되면 即時 佛國政府와 國交를 斷絕할것이다

天皇陛下葉山行幸

【東京電話同盟】天皇陛下께옵서는 明治天皇御例祭를 御終了하섯슴으로 三十日午後一時五十五分 鈴木侍從長官御陪乘 侍從 御劍御璽를 捧하야 供奉 松平宮相 宇佐美武官長以下를 거느리시고 略式自動車鹵簿로 宮城御出門 同二時五分 東京驛御發車 同三時五分 逗子驛御着車 葉山御用邸에 行幸하옵시엇다

首都附近의市에서
兩軍死活的抗爭
政府는首都防備에專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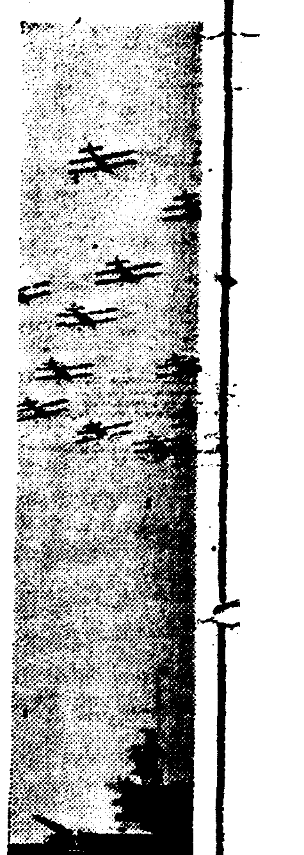
【마드리드三十日發同盟】西班牙內亂은 依然一進一退의 狀況을 繼續하고잇는대 首都마드리드市附近프이드리에서 叛亂軍四萬이 集結하야 政府軍과의 사이에死活的抗爭을 展開하고잇다고한다 一方 東部사라고사에서 政府軍은 叛軍을 包圍하고 猛攻擊을 加하엿다 西班牙政府는 情勢의 急迫에 새로히 軍司令官을 任命하야 首都防備에 萬全을 期하고잇다 一方 革命軍의 總司令 프랑코將軍도 모록코로부터 지브랄타르에 進出하야 決戰을 압두고 自身이 全軍의 指揮에 當할것으로보인다



飛行距離의 世界記錄作成

재·나이트氏가 操縱하는 米國유나이텟트·에어·라인의 다그라쓰機(先頭)가 去六月十七日 會社創立以來 十億哩의 飛行距離世界記錄을 作成하고 市俄古市上空에 達한 歷史的寫眞이다 유나이텟트·에어·라인은 一九二六年 開始된것으로 그동안 優秀한 技術者와 飛行機에 依하야 世界一의 安全한 旅客機로 世界에 有名한것이다

精銳를動員、一瞬에
全獨逸을焦土化
佛蘭西空軍의實力



飛行機의 發祥地는 佛蘭西이나만치 佛國空軍의 進步는 恒常 諸國을 리-드하고잇다 現在에는 그 空軍의 數에잇서서 性能에잇서서 다른列國에 比하야 多少 不及한點도잇스나 그러나 極히 優秀한 空軍을 갓고잇는것은 事實이다 列國은 그空軍에잇서서 極度로 秘密을 嚴守하고잇스므로 正確한 數字를엇기는 困難하나 一九三六年初의 佛國의 空軍勢力은 機數千八百、百六十五中隊라고 稱하야 英獨의 三千機에 다음가는 世界第二의 空軍을 갓고잇는것이 確實하다 一九三三年三月末 때의 空相피엘·콧트氏는 佛國空軍의 獨立을 企圖하야 左의 六點으로된 大綱을 樹하엿다

一、佛國空軍은 陸海軍가티 完全히 平等權限을 가진 獨立編制서 國防의 完備를 期圖함
二、佛國空軍勢力의 規格標準의 統一
三、本國及 植民地에잇서서의 空軍管區의 設定
四、陸海參謀本部와 共同動作으로써 空軍勢力을 監督할空軍司令部組織
五、陸海軍勢力과 함께 緊密한共同動作으로써 即時動員에 應할特別空軍制의 準備
六、全空軍勢力을 命令一下에統制할수잇는 最高空軍司令部組織

以上의 六點을 骨子로하는 佛國空軍 獨立法案은 곳 立法議會의 可決을 經하야 法律로서 實施하엿다

佛國은 大戰當時 獨逸의 空襲을 바든 쓰라린 經驗에 鑑하야 空軍이 가진 攻擊能力을 重視하고 잇다 時速二百키로의 性能을 가진 飛行機면 一時間餘에 獨逸首都 伯林을 攻擊할수 잇다 戰爭은 攻擊으로나가는 便이가 恒常 有利할수잇다는 眞理에서 出發하야 佛國空軍은 特히 爆擊中心으로 空軍擴張을 쓰고잇다 이것은 永久의 敵 獨逸을 目標로한것은 勿論이어니와 英伊等을 敵으로하고 戰爭하는때에도 適用하려고한다 上院空軍委員會委員長 뿔소아氏는 一九三四年에

我海陸兩空軍은 모다 攻擊을 目標로나갈것이다 空中戰의 目的은 航空機와 航空機의 戰鬪가아니라 敵地를 攻擊하는데잇다 그럼으로 爆擊機로서 가장 重要한것으로 思惟하고 戰鬪機로서 此를 保護하여야한다

고 述한바와가티 爆擊機를 中心으로 積極的攻擊을하려고 이것을 그 全目標로하고잇다 그럼으로 一九三四年一月에 잇서서 千八百臺의 航空機中 晝間爆擊機는 一四六機 夜間爆擊機는 一八〇機의 多數를 占하얏는데 中에도 夜間爆擊機는 極히 卓越한 性能을갓고 敵地를 攻擊할수잇게되엿다 AB卅四型BN5機와 가튼것은 二千四百馬力을 가지고 二千키로의 爆彈을 搭載하고 時速二百十五키로 航續十一時間二千百키로 飛行距離-리에 주로부터 단지히까지 飛行할수잇는-를갓고 完全히 수獨逸을 攻擊할수잇는 性能을 갓고잇다 이外에 夜間爆擊으로서 AB廿一型、LEO三〇〇型等모다 前者同樣의 構造를 가진 可恐할 空爆을 敢行할수잇다 이것을 英國의 夜間爆擊機八十臺 伊太利의 十八臺에 比較하면 佛蘭西의 夜間空爆力을 알수잇는것이다 이外에 空軍으로서 佛國은 戰鬪機四九五機、偵察機四八八機를 갓고잇다 눈을 돌려 空軍의 構成을 보면 航空省은 航空大臣의 管轄에 屬하야 次官을 그아래두고 五局에 分하야 (一)總務及一般行政局 (二)技術局 (三)機材局 (四)陸海空軍 人事局 (五)商業航空局等이 잇다 佛本國은 四管轄區로分하야 멧쓰 巴里 초르 리용等의 管轄中心地를두고 다시 植民地北아프리카에 五管區를 設置하엿다 此에所屬한 士官은二千三百七十五名이오 下士官及兵卒은三萬七千五百二十七名 合計 三萬九千九百二名에 達하다 다시이外에 操縱士 三千二百名與 機關銃 操縱士二千五百名이잇서 一朝有事之時에는 이것이 動員하게되엿다

豫算은 一九二八年度에 十一億四千萬法으로 一九三〇年에는 二十億五千萬法、即 거이 倍額의增加를보고 그後一九三四年에는 十二億七千萬法 一九三六年에는 十億七千萬法으로 減退를 보앗스나 獨逸이 베르사이유條約을 破棄하야 空軍擴張의 宣言을發하게되매따라 佛國空軍擴第은 此에 應하야 一層內容의 改善充實을圖하는同時에 增加를 볼것은 明白한것으로 豫算百相이過般軍需品工業의 國有에着手한事實에 鑑하여서도그實情을 看取할수잇다

이것을要컨대 佛國空軍은 어데까지든지 獨逸을目標로 此를 焦土化식히지안흐면 마지안는다는 爆擊中心主義인데 이것外에는 佛國의安全保障이라는것은업다는信念下에 그目標로 向하야 邁進하고잇는것인데 他方에잇서 그만치今後 獨逸과의 空軍競爭은 一層더 拍車를加할것이다

日本政府에要請
불고스新政府承認을
叛軍防禦委員長의名義로

【東京電話同盟】西班牙革命動亂으로 去二十六日 同國불고스市에서成立된 西班牙革命防禦委員會委員長카바네라스氏는 三十日 有田外相에게 急電을 보내어 불고스新政府의 成立을 述한後 日本과의 友好親善關係를 期待하고 新政府의 承認을 要請하엿다 右에關하야 日本政府는 暫時 西班牙一般의 事態를 靜觀하고 어떠한 措處를 講究하기로되엇다

벤다方面에선
官軍大勝!
『키』地方一帶確保

【마드리드發電】北方의 要衝산세바스티안을 確保한 政府軍은 二十八日 國境市 이룬方面으로向하야 猛烈한 追擊戰을 開始하야 오세르에서 激戰後 叛軍의主力카리스트(傳統派)는 벤다에서最後의 抵抗을 試하엿스나 勞働義勇軍의 猛攻擊에 마침내 견듸지못하야 防戰約一時間後 午後七時 피아소아方面으로 向하야 潰走하엿다고 傳하는데 오셀존、벤다兩地의 占領으로 政府軍은 北方깁스코아地方一帶를確保하게되엇다 叛軍은 아직 한브로나로부터 軍需品、糧食의 補給을 밧고 反擊할 念慮가잇서 政府軍은 嚴重警戒中이다

歐洲情勢는逼迫
危機는刻刻深化
콤인테른의最近動向

【哈爾濱發】伊에紛爭以來 歐洲의 政情은 暴風雨前의 靜寂과가튼 異常한 暗雲이 떠돌고잇스며 一方 佛國을 爲始하야 各國의 人民戰線의 擡頭 其他콤인테른의 攪亂工作이 漸次顯著하게되고잇다 獨伊墺블락의 形成은 彼等에게 一大警鐘을 與하고잇는이때에 當地콤인테른研究의 某權威는 歐洲政情의 動向에 關聯한 콤인테른의 活動에 關하야 如左히 말하얏다

伊에紛爭勃發當初부터 콤인테른首腦部의 苦悶은 커젓다 該紛爭은益益擴大化하고 國際聯盟이 이에 對하야 全然無力한것이 暴露되엇다 同時에 獨逸의 對內對外諸政策이 日日 强力化하는 現狀에 彼等은 漸漸 唐慌하게되엇스며 極東에서는 東亞의 安寧秩序確立 平和의 確保를 目的으로한 日本의 大陸政策强化等等 콤인테른에의 脅威는 漸漸 擴大化해젓다 一九三五年에 開催된 콤인테른大會에서 이미 國際情勢의 複雜化와 이에伴하는 콤인테른의 障害物的存在의 增强을 豫想하고 世界의 反共產主義勢力强化에 對한 積極的破壞를 企圖한 新戰術을 採用하엿다 이新戰術의 根本的課題의 하나로 所謂人民戰線의 組織强化를 圖하고 이에 依하야 콤인테른은 各國政府의 行動을 牽制하야 人民戰線을 自己便으로함에 依하야 그나라의 社會、經濟、政治、其他의 攪亂을企圖하엿다 他의 一根本課題로 蘇聯代表를 爲始하야 콤인테른代表를 聯盟에 潛入케함에依하야 自己의 工作展開를 容易케하려고 企圖하엿다

伊太利가 에디오피아問題를 武力에 依하야 解決하려고 하자 콤인테른은 依然 平和宣傳을 强化하야 可及的 人民戰線을 動員하야 世界各國의 共產黨에 對하야 打倒뭇솔리니 伊太利、팟시즘撲滅의 슬로간을 與하얏다、同時에 리트비노프氏는 聯盟에서 對伊制裁의 强制執行을 熱烈히主張하엿다 다음 國際情勢가 顯著히 콤인테른側에 不利하게되자 列國의 非難의 的이된 蘇聯國內政策을 變更할수박게업시 되어 티켓制度廢止、社會的 出身如何에 不拘코 蘇聯學校에 入學自由를 認定하고 드듸어 憲法改正에까지 손을 뻐처 國內不滿을 鎭壓하는 同時에 列國의 反蘇空氣의 緩和에 努力하얏다 그런데 國際情勢의 推移는 益益 콤인테른에 不利하게 되고 잇는것은 彼等 首腦部가 벌서부터 豫知하고 잇는바로 콤인테른 有力幹部인 엘·에르코리氏는 數個月前『共産主義인터나쇼날』誌에서分明히 이豫測을내렷다。即그는 伊에紛爭은植民地戰爭以上으로 重大影響을 가진것으로 歐洲의 矛盾을 尖銳化하야 歐洲의 모든 諸狀態에 날카롭히 反映해서 一九一四年 當時의 歐洲政情의 還追化보담以上의緊迫化를招致하엿다 伊에戰爭은世界分割의新膨大案을提起하는것이다。또伊逸의對外政治的地位를 强化하고獨逸警告의準備를助成하여獨伊의 協力의및太利가參加하리라고唱破하엿는데 이것은 콤인테른側의 모든 反對策動에도 不拘하고 現在 이미實現되엿다

以上과가티 콤인테른은 伊에戰爭은 自己側에 對하야 重大反響을 招致할것을 豫見하기는하엿스나 마츰내 이를 阻止할수는업섯다。伊太利의 勝利는 콤인테른의 敗退를 示하고잇다。即 歐洲의 獨、伊、墺블락 東亞의 日滿同盟은 콤인테른의世界革命工作을 從來와가튼 自由로부터 益益 困難케하는것이다

大使館差別撤廢를
蘇聯大使가要求
有田外相、抗議를一蹴

【東京電話同盟】駐日蘇聯大使유레네프氏는 三十日午後四時 外務省에 有田外相을 訪問하고

滿洲國政府는 그後 依然히 北鐵從業員退職手當金의 支拂을 中止하고잇스므로 日本政府의 支拂保障의 考慮를 要求한다

고 從來의 主張을 反復하엿다 이에 對하야 有田外相은

北鐵讓渡協定의 바라시-르에 記載되지아니한 蘇聯側의 債務가 그後 續續 發見되고잇슴에 不拘하고 蘇聯側이 이 支拂을하지안는以上 滿洲國政府가 北鐵從業員의 退職手當의 支給을 一時中止하는것은 當然하다 日本政府는 오히려 蘇聯側의 善處를 要望하는바이다

라고 유레네프大使의 反省을要求하얏다 大使는 다시

蘇聯大使館은 東京에서 日本官憲에게 極히 差別的取扱을 밧고잇서서 警護에 藉籍로 不當한 取締壓迫을 밧고잇는것이事實이다

라고 이取締의 緩和를 要求하엿다 有田外相은

差別的待遇가 存在한다는것은 到底히 생각할수업는것이다

라고 이를 一蹴하고

다만 莫斯科에잇는 日本大使館이 蘇聯官憲에게 嫌惡되고잇는 事實에 徵하면 或은蘇聯大使館에서 日本官憲의取扱을 不法이라고 生覺할는지모르나 이는 彼此一般으로要컨대 本問題는 相互主義의 精神에依하야善處하여야할것이다

英蘇兩國間의
通商크레듸트協定內容

【倫敦二十九日發同盟】英國、蘇聯兩國政府는 最近에 接近하야 過般 英國上院에서 珍奇하게도 蘇聯政府支持의 主張을 듯게되엿는대 今回 다시 兩國間에 十年間에 亘한 長期의通商크레듸트協定이 成立되엿다고 傳한다 씨티-側 消息에依하면 協定內容은 三十日正式으로 發表되리라고하는대 內容은 如左히 蘇聯政府에 자못有利하다고보인다

一、英國產業界는 一千萬磅을限度로 蘇聯政府에 長期크레듸트를 賦與함
一、크레듸트期限은 十個年、利率年五分半으로함
一、英國政府는 右크레듸트에對하야 一定한限度까지 保障할것
一、蘇聯通商部는 今後 十二個月의注文計畫을 確立하고 英國產業界에 通達함

各國과聯繫强化
全國的抗日戰備
蔣氏의對日硬化諸相

【上海發電】最近蔣介石氏를 中心으로한 南京政府의 對日硬化態度를 例證하는 事實은 다음과갓다

一、蔣氏는 日本의 對中態度를 牽制키爲하야 相當歐米와의 依存政策을 取하야 歐米各國과의間에 經濟援助를 意味하는 聯繫을짓고 各國에서 多數의 陸軍敎官을 招聘하고 잇는때 日本이 積極的으로 國交調停工作을하려고하면 此를 一層强化하야 米國蘇와의 關係를 密接하는 情勢協定을 締結하야 此等國家에서 武器과 對日戰備에 使用할敎官 蘇聯과 佛國과의間에 日本을 目標로한 太平洋集團保障問題에 對하야 折衝을 開始하는事實에잇서 近日此를 具體化하려고하고잇다

二、南京政府는 全國을 數區에分하야 抗日의 積極的戰備를 進行하고잇다 各地商業의 新設及强化및 蘇聯의 新戰術인 토치카의 構築等에 莫大한 費用을 投하야 漸次完成하고잇는 同時에 各國武官의 指導로 全國的抗日戰備를 整備하고잇다 二中全會에서 國防會議를 新設한것은 表面西南派及 全國抗日團體의 主張에應한것처럼 보이고 잇스나 蔣氏의 計畫한 抗日準備와目標가 잇슴으로 國內의 抗日氣運을 背景으로하야 此를强化하는統制機關을 맨든것이다

三、일즉이는 反日政策에 失敗하야 全面的日中國交調整을 標榜히 放送한 南京政府가最近은 그放送限度를 漸次縮少하야 日、中關係打開에는 兩國의 利益을 基礎로 할보담도 自國의 立場을 基礎로할것이라는것을 主張하야 日中共榮이라든가 中國의 讓步라든지를 意味하는 問題는어데까지 拒否하려는 態度를表示하고잇다 蔣介石氏는 如斯한 問題가 兩國間의 議題가 되는時는 그때야말로 中國의 最後의 犧牲을 覺悟할때라고强調하고잇다

四、西南問題의 解決은 南京政府의 氣勢를助長식혀 蔣氏한바와가티 그餘勢를모라 北中問題에 積極的으로 進出하고잇다 일즉이 冀察政權에對하야는 軍事는 宋哲元 經濟는 王克敏을 擔當케하려는方針을 갓작이 變更하야 王氏의 北上을 滿躇케할뿐아니라 冀察政權各委員會의 權限을縮少하야 모다 南京政府의 指示에 依하도록 하엿다 北中問題에 對하야는 今後 더욱 積極的態度를 取할것이다

人事·集會

◆馬郡英俊氏(龍山郵便局長)新任人事次來社
◆麻生藤治氏(元山電信分掌局長)同上
◆北尾常次郎氏(平壤遞信分掌局保險監督課長)同上

夕刊後市況 三十日

◆大阪 短期 氣配◆

大新	六七八〇	(不變)
鐘新	一五七五〇	(不變)
日產	七八七〇	(不變)
東新	一二二〇〇	(不變)

◆橫濱 生糸 後引◆ 當限 七三九〇〇 先限 七三九〇〇
◆福井 人絹 後引◆ 當限 六二五〇 先限 六〇六〇

米、廿三隻建艦

【華盛頓卅日發同盟】米國政府는 一九三六年末까지에 各種軍艦廿三隻을 建造할 豫定인데 이미 右軍艦乘組水兵一萬人의 募集에 着手하엿다고 解釋된다

浪花館
七月三十一日より八月二日まで 晝夜三回上映
上映時間表
▲郷愁 一二·〇〇 七·〇〇
▲文七元結 一·二〇 四·〇三 八·四〇
▲下田夜曲 一·二〇 五·三一 一〇·〇〇
入場料 海劇 六十錢 四十錢

朝鮮日報 京城販賣所 電本(2)一五九七

第一劇場
世界映畫史上에一大驚異完璧一大巨篇 七月三十日晝間부터三日間大公開
每日晝夜三回公演 正午十二時부터六時까지繼續映 晝夜入時給映 特別大衆料金提供 階上十五錢 階下十錢
마쏘·포트르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大科學名篇 五百年後의世界
옷트·부라와氏 부리-스·이-슨氏共同監督
진·오-도리氏 후키다-로氏 베시-킹그로스孃 主演
現代劇 淸水宏氏監督
彼と彼者と小年達
桑野通子 坂本武氏 上原謙氏 突貫小僧氏共演
喜活劇 춤추는英雄 파테-社特作品無聲映畫
豫告 유나이텟트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名篇 다주-엔젤-새벽의공젓
鍾路五丁目 電光一五〇番

若草映画劇場 電本五二三四番
七月廿七日晝夜五日間 晝夜三回入替無シ
▲白き王者 グスタフ·ディースル主演
▲撮影所の惨劇 フランセス·ドレイク主演
▲魔術の女王 松旭齋天勝主演 P·C·L社
大人·五〇 小學生·三〇
P·C·L映畫と 高級洋畫

團成社
廿八日封切(五日間)
每日三回(午前十時半、午後一時半、四時、六時半)
但三回興行中에限하야無說明
◆佛P·J社超特作映畫
盛粧의 밤
監督 귄스탄 主演 가리미유라
◆獨逸토비스特作映畫 푸란츠이카칼主演
폐로니카의꽃다발
宿命的戀愛에그靑年이죽엇을선택할때까지、이것은사랑의기쁨과슬픔의兩極端을보여준傑作 사랑의日記입니다 十七才폐로니카의사랑이뒤끄는사랑의이야기
◆日活超特作映畫
大學を出た若旦那
—(次週封切)—
百萬番の感激、空中さ다는音樂(近日封切)나의行狀記、情熱奏鳴曲어느女子의一生、片道鑑札、情熱의빰바
映畫殿堂 全鮮第一 團成社

當る卅日封切(五日間)
◇次週封切の名篇◇
1、瞬の爆音 2、夜明ヶ鳥 3、キートン野球大當り
◉今週の料金(階上階下均一) 大人三十錢 學生小人二十錢
每日晝夜三回興行
新興キネマ大衆現代劇全發聲 監督 新興川手二郎
乙女橋
江川なほみ、姬宮接子主演
ユナイテット超特作日本版 巨匠フランク·ボーザーギ監督
秘密
メリイ·ピックフォード レスリイ·ハワード 共演
新興キネマ京都時代劇傑作 監督 山內英三 オール·サウンド版
若衆白柄組
尾上榮五郎、久松美津枝、白石勝子 主演
永樂町 電五五番 中央館

千載一隅の名映畫封切!
當七月三十一日早日超特別大興行
유社超特作全發聲日本作版
名匠람바-드히리아氏大品
透明光線
二大明星 보리스카로프氏主演 惑星 베라루고시氏 妖姬호란시·스도래-그孃助演
科學映畫의白眉篇이요戰慄怪奇의絕頂篇!過去에이가튼映畫가잇섯든가?斷然그類를보지못한最大傑作이다 科學藝術의精華를모이여『카로프』『루고시』는一大惑星의主演映畫!
米스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名匠죠셉프레바링그氏監督作品
暗黑街總攻擊
죠-지라프트氏 가사린오-엔孃主演
大都映畫社超大作時代劇 石山稔監督作品!
怪猫佐賀の夜櫻
阿部九洲男木下雙葉主演
貫鐵町 電光二三九五 優美館

오래동안 피부병으로 고통밧든 분은 피부차지를 바르시요 가려운증은 엄서지고 계속하야 바르면 씨슨듯이 나흠니다
永い年月皮膚の病でお困りの方 皮膚チャージおつけ…
のゆみすぐとまり 續けて付ければキレイに…
…デパートにあり

白頭山探險前記

不咸、蓋白、大白、古號 우리겨레의原籍地

西洋人으로서도六十年前에登頂

歷史的으로본白頭山 (一)

동 방의진산(鎭山)인백두산은그산으로서의지리적존재보다도그격(格)으로서의 인문적(人文的)존재가 더클것이다.

백두산은 력사이전부터 우리선민(先民)들의 오직하나인 신앙적대상이되어 우리겨레의『아미바』적출발도 여기서 하엿고 우리문화의 첫씨가 여기서 눈이 트고 왼통조선이라면 넘이 여기서 버러진것이다。그러고보니 여기는 우리력사의 출발점이되엿고 우리문화의 일체모자리가 되엿고 우리생명의 원천지(源頭地)가되엿다。

『단군도옛날 한나라(桓國)서자(庶子)환웅(桓雄)이 그아버님의뜻을 바더가지고 홍익인간(弘益人間)의 크나큰소임을띄고 천부인(天符印)세개를받든 삼천도중(徒衆)을 거느리고 태백산(太伯山)꼭대기 신단수(神壇樹)아래 나려왓스니 이것을 신시(神市)라 이르고 이분을 환웅천왕(桓雄天王)이라고 불럿다 세상을다사림에 주곡(主穀) 주명(主命) 주병(主病) 주형(主刑) 주선악(主善惡)외에 인간의삼백륙십가지일을 마터다스릴새 그아들을 나허 일홈하니 단군왕검(壇君王儉)이요, 이에서비로소 조선(朝鮮)이라고일카럿다』……(三國遺事)

이 가리 단군의 신시(神市)로부터시작하야 부여(扶餘)로 고구려(高句麗)로 말갈(靺鞨)로 발해(渤海)로 금(金)으로 녀진(女眞)으로 청(淸)에이르기까지 백두산을태반(胎盤)으로생긴 제국만하드라도 칠, 팔개를 헤일것이니 백두산은지상으로 동방문화의어머니가되고 정목지가되여 신화(神話)속에서구더진 신앙이 사천여년을두고 흐르고흘러 우리들의핏줄에까지배이고 숨여저잇는것이다 이러고보매 백두산은 땅이로되 한조각땅이아니요 산이로되 예사로운산이 아니요, 뭍이잇스되 범상한뭍이 아닌것이다。인격(人格)과 신격(神格)과 물격(物格)을겸하자 또이것을초월한거룩한 존재일러이다。

이가티 외롭고모다 가우리의 미미더하는 산이아니라 아득한녯날부터 우리땅데를 버서나가 이(異)민족들사이에도 널리알리어 잇섯스니 진한(秦漢)사이에 고서(古書)인 산해경(山海經)에는 불함산(不咸山)으로알려잇고 후한서(後漢書)동옥저전(東沃沮傳)으로알리워잇고 후위서(後魏書)물길전(勿吉傳)에는 태백(太白)으로 알리워잇고 괄지지(括地志)에는 백산(白山)으로 알리워잇고 금(金)나라사람들은 신라산(新羅山)이라고 행정록(行程錄)에서 불럿고 금사(金史)에는 장백산(長白山)이라고불러 장백산신(山神)을 국신(國神)으로모서 묘우(廟宇)까지 세워섬겻든것이다。

백 두산이라고 부른일홈이 처음으로문헌에들어나기는 고려(高麗) 광종(光宗)때에 여진(女眞)을 압록강밧그로쫏차 백두산 넘어살도록 한것이 문헌에 처음으로 발견된것이다。이와가티 불함(不咸) 개마(蓋馬) 태백(太白) 신라산(新羅山) 장백(長白)등이름으로 불리운 백두산은 오즉우리들만이 밧드러모신 령산이엿슬뿐아니라 이국인들사이에 잇서서도 이산을 엄숙하게 보고 거룩하게 대하야 『有熊羆[illegible]、不害人、人不敢上山溲汚』도는『其山禽獸皆不害人、人不敢[illegible]』등으로 설명되여 [illegible] 지목되여온것이다。이가티 국경을가리지안코 크게 놉게거룩하게 보아온 이산에누가 먼저발길을 드려노핫슬까

우 리의 선인가운데 그리저잇는신시(神市)시대를제처 둔다면 [illegible] 하수천년래로 일홈잇는 [illegible]들이 꼬리를 물고이산에 [illegible]이요 문헌에나타나기로는 숙종(肅宗)시절에 청국(淸國)과 조선사이에 국경을 획정하고저 감계사(勘界使)박권(朴權)과 회제(會寧府使)[illegible]이 정계비(定界碑)까지 올라간것을 비롯하야 서양인으로서는 지금으로부터 오십구년전에 영국인 [illegible]씨가 처음 지까지 올라가 동식물의채집을 한일이잇섯고 그후에 [illegible] 로서아화자[illegible]가처음으로 천지를 사진박은기록이 잇다 벌서 륙십년전에 만리이역의 서양인화자들이 채집을목적으로 등산까지 한이곳에 이산의임자로 자손들인 우리들로는 근년에이르러군대행군연습에 몃차례따라가 그나마 수박것만 할고온것이 큰성공이요 지금까지 우리손으로단체적등산을 계획한것은 이번이처음인것이다

(사진은 백두산 화구벽) (L記者)

前後十二時間討議로 東銀問題遂解決

株主總會圓滿히終了

夕刊續報=문제의 동일은행정기주주총회는 본보석간 경제면에 상세보도한바와가티 삼십일오전열시삼십오분에 극도의 긴장속에 개최되여 오후 열한시반까지 약열두시간동안이란 조선은행사상에 처음보는장시간의 토의로 그동안 두번의 휴회는잇섯스나 통틀도하는듯한 분위긔에서 마침내 원안대로 결정을보앗다 그리하야 한때에는 그귀취를 염려하게되든 동일은행문제도 필경원만히 되고야말엇스며 이로써 원만한 해결을보게되엿스며 일로써 조선사람끼리경영하는 유일한금융 긔관으로서의 동일은행의 장래는 더욱 긔대가커젓다 한다

新選重役을披露

暴風一過後에靜寂

一時는空氣도險惡

서현관계로 일단휴게햇든 별항주주총회는 가튼 열시이십분부터 속개、성(成)의장으로부터 간담회결과를 좌중에 뭇자좌중으로부터 이것을반대하는소리가 노파 한때는장내가 소란하엿다 그후 구연광씨로부터 원안(原案)대로 진행하기를 주장하고일부에서는두취제가 취체역회장제로 마련되든 리유를 발켜달라는고 요구함에대하여또 일부에서는듯지금 새삼스럽게 원안이 변경되기까지의 경과설명을 할 필요가업다 그것은 즉 은행 중대사건으로 오늘날 이런문제가 일어나게 된것이 아닌가?』하여 가볍게 일축、그후 의장으로부터 『역원선거는 어떤방법을 취해서 하겟는가?』의 문제가 제안되여 대표취체역으로 민규식(閔奎植) 전무에 시천(市川)、상무 성원경(成元慶)、취체역 오건영(吳健泳)、민규식(閔圭植)그리고 감사역에김사연(金思演)씨등으로 각각지명을하게되자 주주중 모씨로부터 그경솔천만한 지명선거를 론난한다음 중역들은 모름직이책임을지고 당연히자처할 각오를가지라고 주장햇스나 결국지명한 역원들에대하여 가부를 물어만장일치로 가결되엿다。그리고 신임된중역들의 소개가잇는다음 폐회되니 때는열시 오십분경이엿다

重役의新陣容

▲取締役會長兼代表取締役 閔奎植(新任)
▲專務取締役 市川眞次郎(昇格)
▲常務取締役 成元慶(新任)
▲取締役 吳建泳(重任)
▲取締役 閔圭植(新任)
▲監査役 金思演(新任)

株主總會紛糾經過

甲論乙駁으로肉迫

별항과 가티보도한바와가티 동일은행주주총회는 한시간이어마 비밀회의를 계속하든바 오후세시삼오분(삼시삼십오분)에 다시 공개케되엿는데 비밀회의에서 업무보고의경과 이에 관련한 동은행의 대문제로 론의가 격렬하얏다고본이어 동문제를 가지고 주주측의 은행당무자 즉 중역들에대한 질문은 격분된 어조로 장내는 찌르면 터질듯 어 긴장되여 공긔가 매우험악하얏다

이제 그론전의 꼴자를 추려보면 의안의 첫머리에 돌린 영업보고 대차대조표、재산목록급손익계산서승인의건과 이에 관련된문제를 에워싸고 주주측으로부터 한만희(韓萬熙) 림창수(林昌洙)리인(李仁)등제씨가 번가라 이러나 영업보고의 불철저를 론란하고 감사역은 감사하얏는나안하얏는나하는 질문하매 성원경(成元慶)전무이하 백남혁(白南赫)감사역、리승우(李升雨)전감사역등 중역측에서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니 주주측에서는 그대로 지나지안코 추궁은 맹렬하야 리인(李仁)씨와 가튼이는 분연히 이러나 검사원(檢査員)을 선거하야 검사를하야서라도 영업상태를 명백히한후에야 영업보고의건을 승인하겟다 그리고 은행대사건에 대하야서 중역들의 책임은 엇지하려는가 그러한 사건을 이르킨 책임은 당연 중역들이 지고 사임하는동시에 그손해에대하야서는 사재(私財)를 내놋코 맛당히 자결(自決)할것이다 고 과격한 론란이잇자 조병상(曺秉相)주주가 이러나 저번은행의 중대사건과가튼것은 은행사에서 차저볼수업는 대주례로 중역측에서 를 책임을 저야 할것이지만 검사역을 선거하야 가지고영업상태를 검사한다는 것은 은행의 신용을 떠러트리는것이니 그것만은 보류하고 감사역이 치밀한 감사를 하도록함이 조홀것이다 고 주장하야 감사역의 영업상태에대한 검사문제와 중역책임문제로 또다시 론의되다가 림창수씨로부터 중역의 책임문제는 일단휴게하야 중역새에서 충분히의론한후 명확한답변을 하야달라는 요구가잇서 세시오십오분에휴게하게되엇다 약삼십분동안휴게한후 회의는 네시반에 다시 열리엇는데 성전무로부터 중대사건에 대하야서는 물론 어듸까지든지 책임을 질것이나 사재를 내놋는 문제에잇서서는 민대식(閔大植)두취와 의론한후가 아니면 대답할수 업다 답변하고 시천진차랑(市川眞次郎)상무로부터는 책임은 물론지기나 사재를내노라는데 대해서는 자긔는 개의 고용(雇傭)취체역에지나지못하고 또 내놀의사가잇드라도 불행히 그만한 재산을 가진것이 업다 하고 오건영(吳健泳)취체역도 시천씨와 대체가튼 답변을 하야 주주측으로부터 그답변에 성의가업다하야 비란이 잇섯다

人事問題와 賞與金論難

뒤니어 인사문제에 당국의 간섭을 밧게되데대하야 림주주의 질문이잇서 성전무로부터 소화팔년에 당국의 은행정리안이 서게되어 그안의 한조항으로 인사에대하야서는 재무당국의 량해를 밧게되어잇다는 답변이 잇섯는데 의사가 진행되지 안흠에잇서 영업보고문제를 속히 해결하야 버리고 그다음 의안에 드러가자는 동의와 재청이잇고 가부를부터 의이가업서 가결되고 다음의안인 리익금처분안에 드러가 주주배당과 역원상여금이 문제되엇는데 리인주주로부터 중대사건을 이르키이만치 역원은 재책임을 다하지못하얏스니 상여금 삼천오백원만은 삭제함이 마땅하다 고주장함에대하야 조병상주주는 주주배당만하고 역원상여는 삭제함은 불가하다 그러니 배당, 상여를 모다 그만 두든가 다주든가 할것이다 라고하야 갈론을박한끄테 역원상여만 삭제하기로 결의되엇스나 다섯시사십분부터 십분간휴회한후 다시 개회하야 가튼문제로 토의를 계속하얏는데 원안의 번안이나와 이것이 가결되어 형식상으로는 역원상여는 그대로 주게하고 실질에잇서서는 역원이 상여를 사퇴하게되엇다 그다음의 안인 중역사임의건은 뒤로 돌리고 총장소를 지점으로 승격식히는건 사임취체역 퇴직 증정의건에 드러가 아무의업시 원안대로 가결되엿다 그리고 정관변경의건에 드러간데 의론이 분분하다가 일곱시 사십오분부터 약십오분간 휴게하엿다

頭取制廢止 問題로激論

午後八時續開=주주로부터 간담회경과를 설명하여달라고 함에대하야 성전무는 정리안이 서는동시에 재무국과 조선은행의 구속을밧게되엇스니 그에대하야는 디로지말어주기를 바란다하고 간담회경과는 교섭위원이 한만희씨에게 설명하여달라고하엿다 그래서 한만희씨로부터

一、간담회의로서 민대식씨만사임하고 그동함으로 민규식씨를 두취로 성원경씨를 전무 시천씨를 그대로 상무로잇게 하라고 하엿스나 리재피로부터 원안과 먼거리잇는안이중인한수업다고한것

二、두취제폐지는 성전무의발의임에

三、다음에 취체역 회장으로함에잇서 은행내규에 정한대로 즉두취의승인과 감독을밧는것을 취체역회장으로 하게되야 실제에는 두취와 별로다름것이업는것

四、그리고 대표취체역을 취체역회장으로할것

五、정리은행인만큼 당국의감독과 깅해에의커되으로 이은행주는권리의행사를마대로못하는것

등의 긴설명이잇섯다 그러나이중에잇서 성전무가 두취제폐지라고한말이 문제가되야 오취체역으로부터 그사실이 업슴을변명하고또성전무의견분언사와 원경씨로부터한만희씨의 공격이 잇섯다그뒤김한규씨가 한만희의 설명에대한 보충설명이잇고또 달은주주로부터 민성랑파의 대립과 알륵의사실을 밝히라는대박이 잇는뒤 휴회하고 저녁밥을 먹엇다

東海岸과南朝鮮에 自動車十六線新設

所要經費를明年豫算에計上

철도국에서는 국영자동차선로의 확장을하기위하여 목하신설할선로를 선정하고저 그준비를바삐하고잇는데 그선로는 동해선연선(東海線沿線)과밋 남조선일대의철도가 드믄곳으로 내정되엿다 그리고 두방면에 열여섯선로의개통을보게될터로 소요경비를 래년도예산에게상키로되엿다 한다

女運轉手事故

죽첨정(竹添町)이정목 일백사십일번지 신정(新町)택시ー운전수 조덕순(趙德順)(二七)女은이십구일밤 열한시반쯤되여 경구천이백사십구호차를몰고 황금정(黃金町)쪽으로 질주하다가 앵정정(櫻井町)언전지대에 차를 모라 『콩크리ー트』벽을 깨트렷다한다 손해 약십원가량이된다 한다

Olympische Spiele 1936

待望의八月一日 伯林올림픽切迫

出戰하는우리選手七勇士에게 本社에서激勵電發送

무더운여름밤에 오륜기(五輪旗)의 휘날리는 나치스독일(獨逸)의 국립경기장에는 세계오십삼개국사천팔백여명의 젊은전사들이모여서 모국의명예와 올림픽정신의 발로를위하야 분투할 제십일회세계올림픽대회는 [illegible]월일일(조선시간오전첫시)을기하야 역사적막이열린다 이평화의 싸홈터로보내 우리일행칠사는이미 전지에진치고 희망에 가득찬이날을 기다리고잇슨지 오래되엿다 이들의 건투를비는 이천삼백만 동포들은 전기무르녹은 백림을 향하야 축복의미소를 던지고잇슬뿐 이에 개막식을 압두고 외로운가운데 긴장과 초조속에 잠겨잇는 우리용사들을 격려하기위하야 본사에서는 다음과가튼 격려전보를 백림올림픽촌에 잇는 우리용사에게 타전하엿다

『세계의면전에서 조선남아의 용명을 다하야 [illegible]을 뜻질르고 영관을획득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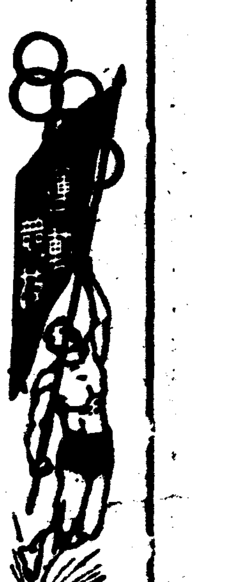
우리選手出戰日程

◇…第四日(火曜)=午前一時 對瑞典蹴球第一回戰(金容植君出場)
◇…第七日(金曜)午前零時=對中國籠球第一回戰(廉殷鉉、李性求、張利鎭三君出場)
◇…第九日(日)午後十一時=마라손(孫基禎、南昇龍兩君出場)
◇…第十日(月曜)午後十一時…午前四時半間=拳鬪第一回戰(李奎煥君出場)

車票檢査틈타서 少年이突然下車

奉天서釜山가는車中에서

이십구일오후일곱시팔분 금천역(金泉驛)을 출발한 봉천(奉天)서부산(釜山)을 향해가든 제사렬차속에서 때마침 차장이 차표검사하고잇는중 열대여섯살가량되어보이는 소년한명이 갑작이 차창박그로 뛰여나린것을발견하고 곳 차를 정거시키고 뒤를 따르게햇스나 그대로 도망을하고 말엇는데 그때문에 그렬차는이십사분동안 연착하엿다한다。



次回大會地問題 東京有利

올림픽總會第二日

【伯林三十日發同盟】國際올림픽委員會總會第二日은 三十日午前九時(日本時間午後五時)부터「호텔·아드론」에서 開催한바 議事를 非公開로하고 委員以外에는 누구나 出入을不許하고 嚴重히警戒하면서 議事를 進行하엿다 이날東京에 投票할 예定이엇든 「굿」스氏가 缺席하야 아기로氏가代理出席하엿스나 그代理는 認定되지안키로되엿다 今日投票를行한다면 日本은一票를잃게되엿다 뒤니어 米國委員장그氏의 辭表提出로後任으로 米國體育協會長 부런데ー지ー氏의 委員就任을認定하고 또밟가스氏의 新委員推薦도 承認되여 日本은 여기서有力한二票를 獲得하기로되엿다 이리하야 議題의第三인 一九四〇年大會開催地問題에 옮기여 라트ー르伯으로부터東京及 헬싱키의 調査結果를詳細說明하엿는데 問題는 日本選手에依한 長期休暇를 必要로한다는데잇서 이點에對하야 各委員으로부터 質問이 잇섯스나 大體의 點은 解決될모양인데 票決定은 三十一日午前中에 延期될것으로 推測되며 會議는午後零時十五分(日本時間午後八時十五分)에이르러 暫時休憩하기로되엿다

男女中等校 籠球戰績

今日!各部決勝

朝鮮體協朝鮮支部主催의 第四回全朝鮮男女中等學校籠球選手權大會第一日은 京城師範과京城運動場兩『코ー트』에서 開幕되엿다함은昨報한바어니와 이날接戰끄테決勝戰에남은 各校는 다음과가타 그러고 各部決戰은 今三十一日午後一時부터 열릴터이라고한다

▲高普部=光成高普對平壤高普 ▲實業學校部=崇仁商業對善隣商業 ▲女子部=京城女高對第一高女 ▲中學部=龍中對元山中學 ▲師範部=京城師範對平壤師範

平高45 (27 18 / 2 5) 7一高

高普部準決勝戰인 平壤高普對第一高普戰은 三十日午後二時四十三分부터 村上、大草兩氏審判下에열린바 結局四十五對七로平壤高普軍大勝하야決勝戰에드러갓다

【一高】	前	後	反
F 鄭遇鴻	1	0	0
F 鄭雲鍾	0	0	0
C 李重潤	4	0	0
G 李昌河	0	0	0
G [illegible]	0	2	1
G 李西鎬	0	0	1
計	5	2	2

【平高】	反	後	前
F 李在潤	0	6	2
F 李鎔均	1	3	2
C 朴仁成	1	2	0
G 李好善	1	12	8
G 金得坤	1	2	2
G 李相笠	0	2	0
G 金永聖	0	0	0
計	4	27	18

光成37 (24 13 / 8 10) 18徽新

高普部準決勝光成高普對徽新學校는 同午後三時半부터 李文鎬、大草兩氏審判아래열린바 三十七對十八로 光成快勝하야 決勝戰에 드러갓다

【徽新】	得	反
F 金寬植	2	1
F 鄭東浚	5	3
C 秋開燁	3	0
G 朴仁瑞	2	4
G 梁在喜	6	1
G 張元一	0	0
計	18	9

【光成】	反	得
F 金泰均	0	2
F 盧元黻	0	2
F 李元波	1	2
C 韓炳杰	1	6
G 姜義廷	1	2
G 尹永哲	1	10
G 邊君模	0	13
計	4	37

一女22 (5 17 / 2 4) 6釜山

釜山女高普對第一高女準決勝戰은 同午後四時半부터 李文鎬、牧山兩氏審判아래 開始된바 二十二對六으로 釜山女高가 敗하엿다

【釜女】	得	反
F [illegible]	2	1
F [illegible]	2	1
C 宋[illegible]	2	1
G [illegible]	0	0
G [illegible]	0	0
計	6	3

【一女】	反	得
F [illegible]	1	10
F [illegible]	1	4
C [illegible]	1	6
G [illegible]	0	0
G [illegible]	0	2
G [illegible]	0	0
計	3	22

女高28 (16 12 / 9 6) 15龍谷

京城女高對龍谷高女準決勝戰은 同午後五時三十五分부터 岩國、丁相允兩氏審判아래 開始된바 二十八對十五로 京城女高가 勝하야 今三十一日午後一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第一高女軍과 決勝戰에서 對時케되엿다

【龍谷】	得	反
F 笠井	2	0
F 梅崎	0	0
F [illegible]	6	2
C 村田	0	0
G 山口	7	2
G 山內	0	2
計	15	6

【女高】	反	得
F 李容淑	2	5
F 崔[illegible]	0	2
F 金[illegible]	0	0
F 太英姬	1	2
C [illegible]	0	6
C 金淳[illegible]	0	0
G 金[illegible]	1	2
G 劉玉[illegible]	2	11
計	6	28

卓球選手權大會

朝鮮卓球協會主催第三回全朝鮮卓球選手權大會는 八月十五、十六兩日間 城大豫科講堂에서 行할터이라한다

◆十五日(土)午後一時 女子部
◆十六日(日)午前十時 男子部

米拳鬪選手歸還命令

【伯林二十九日同盟特派員發】米國올림픽拳鬪代表選手中 메데ー級의 차ー지君과 웰터ー級의[illegible]兩選手는 규례ー닝規則에違反된行爲가잇슴으로 二十九日米國歸還命令을發하엿다 全米大量출場을目標로한 米國팀으로서는 二名이나出場치못함은 큰打擊이나 이미水泳의자렛드夫人의問題도잇고 올림픽村의生活에도統制上遺憾되는點이잇슴으로 부런데ー지團長은斷乎한處分을나린것이다

仁商13 光中1

大朝主催의 甲子園中等野球大會朝鮮第二次豫選準決勝…中部代表仁川商業對湖南代表 光州中學戰은 三十日午後三時五十三分부터 京城球場에서 石井(球)平井、大島(壘)三氏審判下에 仁商先攻으로開始한바 結局十三對一로 仁商軍勝하야 今三十一日에 南朝鮮代表大邱商業軍과 決勝戰에서對時케되엇다

◇投捕(仁商)山口…佐藤(光中)河村…金澄善、粕谷

仁商	5	0	4	0	0	0	4	0	0	13
光中	0	0	1	0	0	0	0	0	0	1

中等柔道大會 九月十二日에開催

東京留學生武道會主催의 第八回全朝鮮中等學校 柔道大會는 來九月十二日(土曜)午後一時부터 京鍾路靑年會館體育館에서 開催할터인데 參加希望校는 九月八日까지 東亞日報運動部로 申請하기를바란다고한다

日本蹴球代表敗退

【伯林卄九日發同盟】日本蹴球代表一行은卄七日 獨逸의『미네르바』軍과 練習試合을 擧行한바 結局三對二로敗하엿다

미네르바3 (2 1 / 0 2) 2日本

今日의運動

◇…籠球=全朝鮮男女大會第二日決勝戰…京城女高對第一高女(午後一時)崇仁商業對善隣商業(午後二時半)龍中對元山中學(午後四時)平壤光成對平壤高普(午後五時半)京城師範對平壤師範(觀覽無料)
◇…野球=甲子園中等大會朝鮮豫選…仁川商業對大邱商業決勝戰(午後一時)(觀覽無料)◇東京巨人軍(職業野球團)對全京城留守軍對抗戰 午後五時 以上京城球場 觀覽料指定席 七十錢 一般四十錢 學生三十錢

高血壓은여름에危險하다

體毒으로血行이나빠지고

上氣、耳鳴、肩臂痛、動悸、喘息으로煩悶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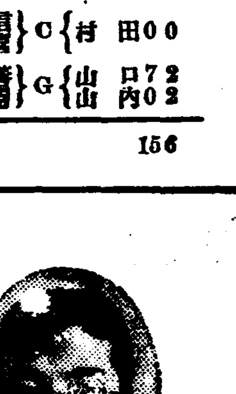
病的으로過히肥滿한것도

이러케하면 알맛게 살이내리고

血壓도내려서 참으로健康하게

フルチ錠創製者 (前警視廳吉原病院)

小屋良明先生



젊엇슬때는 호리호리하든 身體가三十五六부터 살찌기始作하야 곳 이마가버서지고 白髮이섞기는 初老期가되면 배가나오고 布衣와가티되여 二層에오르내리는것도힘들게되는 사람이만치만이러합니다 이러케病的肥滿을『瘀血肥滿』이라고하엿습니다

眩氣症 … 心臟은濁血이 充滿하야 危險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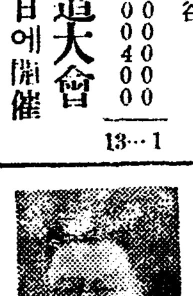
腦動脈과 … 『過히肥滿』하는主因인『瘀血』을 깨끗이除去하면 살이보기조케되는것은 當然이다……

婦人病毒을 原因으로하는 喘息 動悸 盜汗 …

新方法을 … 完成하야『瘀血除去法』이라고 … 多數히各方面에 …

뚱뚱하게살쩌서 危險하다고하엿지만

東京 大竹重之進



나는뚱뚱하게살이쩌서 紅顔으로서목이바 … 中風이 안되고말엇다。 大阪 村田[illegible]

黑便과 瘀血 … 古醫學의 理論의 一致가나온 小屋先生新製의フルチ錠은 …

「瘀血」排除에 非常한好評

小屋良明先生創製 東京吉原遊廓病院

フルチ錠

主効: 神經痛 高血壓 腦溢血 中風 心臟病 … 梅毒

十一日分 … 二十三日分 … 五十日分 …

古醫學에서新發見 (四六判五十頁)

無代進呈 葉書로申込하면곧送付함

病毒排除 血液循環と瘀血療法

必讀 (痛、耳鳴、動悸、喘息、…)

申込所 古醫學研究會

京城版

僧侶講習會開催

시내남산정(南山町)사정목에잇는 진종(眞宗)조선별원 양성소에서 는칠월이십팔일부터 팔월이십 일까지 불교하기강회(夏期講會)를 개최하는데자 세한것은동소에문의하기바란다고

龍山出張所管下에 廿兩個町會組織

併合問題로四個月間遲延

各總代와任員을決定

재작년 경성부구역확장이래 오늘에 아르기까지 만이년동안이나 한껏, 비합병문제와 아울러 총대선정문제등 여러가지 착종된문제로 말미아마 끄으러오든 경성부용산출장소(龍山出張所)관내 신편입된 각동리의 정회는 요지음에 와서 대략다 음과가티 그결정을 보게되엿다 한다

【[illegible]光町】 ▲總代 卞德權 ▲副總代 張奭燮 ▲評議員 金德劍外十四名
【[illegible]里町】 ▲總代 金[illegible] ▲副總代 吳元泳 ▲評議員 金重顯外十四名
【汝矣島町】 ▲總代 李天祐 ▲副總代 金聖集 ▲評議員 柳聖澤外四名
【賀中町、上水[illegible]町、下水[illegible]町】 ▲總代 康容相 ▲副總代 朴潤植 朴鎭遠 諸奎昌 ▲評議員李桂員外十名
【西橋町、蛤井町、望遠町】 ▲總代 金相敦 ▲評議員 今[illegible]外十三名
【漢南町】 ▲總代 李鳳烈 ▲副總代 李秀燦 朴朔相 ▲評議員 張錫準外十九名
【倉前町、新中町】 ▲總代 朴奎秉 ▲副總代、李桂昌 諸圭逸 ▲評議員 朴正用外十二名
【玄石町】 ▲總代 李晩宰 ▲副總代 張基萬 ▲評議員 崔基天外十一名
【土亭町】 ▲總代 朴大勳 ▲副總代 鄭德心 ▲評議員 李漢辰外 六名
【西氷庫町】 ▲總代 段現桂 ▲副總代 朴聖基 段鴻柱 ▲評議員 白仲鉉外十五名
【東氷庫町、纛城町】 ▲總代朴致陽 ▲副總代李時潤、姜大昊 ▲評議員金明昊外二十二名
【大興町一區】 ▲總代任肯淳 ▲副總代鄭奎浩 崔璽均 ▲評議員[illegible]成外二十一名
【大興町二區】 ▲總代朴[illegible] ▲副總代[illegible]、田[illegible]鉉 ▲評議員金永洙外二十六名
【新水町、舊水町】 ▲總代 李秉祥 ▲副總代 金[illegible]元 ▲評議員 金[illegible]明外二十四名
【龍江町】 ▲總代 沈[illegible] ▲副總代 金[illegible] ▼評議員 金容善外二十二名
【孔德町一區】 ▲總代 金元煥 ▲副總代 權[illegible] 任東宰 ▲評議員 李元載外二十五名
【孔德町二區】 ▲總代[illegible]基昇 ▲副總代 吳誠煥 ▲評議員 金敎烈外廿四名
【孔德町三區】 ▲總代 段[illegible] ▲副總代 宋[illegible]浩 安永[illegible] ▲評議員 徐元奎外廿六名
【新孔德町一區】 ▲總代 朴敏信 ▲副總代 許整大 [illegible]雄 ▲評議員 [illegible]外卅三名
【新孔德町二區】 ▲總代崔榮興 ▲副總代崔泰植 金春敎 ▲評議員金有裕外三十四名
【新孔德町三區】 ▲未詳
【新孔德町四區】 ▲總代鄭台鉉 ▲副總代李明植 曹秉均 ▲評議員蔡基洪外三十一名
【梨泰院町一、二區】 ▲未定
【唐仁里町】 ▲未定

仁川桃山町"强盜"의 目標는 잠든處女

수욕을채우려든자의행동

女子들의注意할일

【仁川】 여름밤 부인네들 문조심할 에로범죄=작보의 인천부 도산정(桃山町)백모(白某)의 집에 침입하엿든 강도범은 식도 강도란는바람에 소관인천서원이 현장을 달려가보니 실상은금품을 강탈하려든것이아니고 대발(竹簾)속으로들어보이는 잠든처녀를보고 것잡을수업는 욕심에 뛰여드러갓든 싶다한다 전긔백성칠의집에는 열일곱과 열여덜살의 두처녀가잇는데 수상한행동으로 그집부근을배회하며 틈을엿보든자가갓금잇고 지난봄에도 침입하엿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도망간자가 잇스므로보아 이번행위도 역시"에로"의 범죄로추측되다고한다

面)근방으로 고비원주해와서"독"과"소곰"을모다 헐가방매하는측 시 남어지 팔십원과 함께서근처 주점으로 매일밤 토별음란이며 호탕하게 놀기를 일삼엇다는데 결국은당지 경찰의눈에 발각체포되는 동시 일건서류와 함께 지난이십칠일 개성서로압송되여 철창에 신세가 되고말엇다한다

兩個埋立工事와 無主墳墓十二座

【仁川】 대인천종합계획으로 남북(南北)해안 매립(埋立)공사는 착착 진행되어 느저도 금년내로 화정(花町)과 송현리(松峴里)십여만평이 완료되리라하야 발서부터 원매자가 쇄도하는형편이다 더욱이 각공장의 초래운동까지 맹렬히 활동하고잇다는데 이제 동해면매립에쓸 토사(土砂)를파내이는산에 임자업는분묘가 십이분상이나잇다한다 자세한것을 듯건대 화정매립공사에쓰고 잇는 룡정리(龍亭里)산분묘 여섯과 송현리매립공사에 사용하고 잇는 신화수리(新花水里)산에분묘여섯 도합 십이분상이 잇슴으로주인을 백방으로 차젓스나 알길이업서 우선인천서 위생계에서는 동분묘를송기리(松基里)공동묘지에 이장하야다가 묘주가 날때에 수시양도한다는데 누구든동묘주를 아는사람은곳인천서위생계에말하야주기를바란다 한다

仁川松峴里地料問題 又復問題化

借地人側結束反對로

【仁川】 기보한바와가티 인천송현리(松峴里)백번지일대 회전(梅田)양방의소유토지의 차지인 팔십여호에 대하야 종래의차지료 칠전이든것을일약이십오전으로 인상하야광범의 반대운동은 자못중대화하고잇서 일반의 주목을끌고잇든바 근일에이르러 지주측으로부터 칠후전에 인상을하겟다양보하얏스나 차지인측에서는 역시 칠전이상을 인상할수업다하야 쌍방의 태도는 자못강경한편이라 문제는 여하히 락착을지울지 가장주목되는바이라한다

새젓으로詐欺

【開城】 시외청교면갈리(府外靑郊面[illegible]里)이백팔십오번지사는 우독제(禹篤在)(二二)는 동면동리이백오십팔번지사는 박용섭(朴用燮)(三七)과 공모한후 지난칠월이십일오후 팔자경에 동리이백사십팔번지 김영권(金永權)으로부터 「새우젓」을 사다준다고 계약금으로 백원을바다가진후 이십원은자긔집 가용에소비하고 남어지 팔십원을 가지고 다시 새우젓 독 륙십개(시가이십원)와 소금열여섯가마니 (시가이십이원사십전)를 인계해가지고 어데론지 종적을감추고 말엇든바 전긔두 명은 그후해주청룡면(海州青龍[illegible]

延期되든蹴球 八月一日에續開

本報永登浦支局後援

【永登浦】 지난이십오일부터 삼일간 개최하려든 영등포체육회 주최와 조선일보영등포지국후원의 제삼회경기호축구대회는 경기진행중 소낙비가 쏘다저서 그만부득이 중지하고 무기연긔를 하엿든바 장마도그러저러다 것치는모양이오 운동장도 평시와가티 잘구터감으로 오는팔월일일오후일시부터 경기를시작하기로 되엿다고한다

驚異的兩大雜誌「朝光」과「女性」

바다의 愛人——江風에 凉味를 실고 (朝光八月號畫報의 一部)

浪漫과 哀愁의 交流 港灣海洋의 叙情詩

잇지못할江바람에 흔들린 옛追懷

朝光八月海洋特輯號

여름의 더위는 지금이 한창입니다 찌는듯한 더위에 나무풀조차 시드는 요즈음 특히 조광(朝光)은 여러분의 더위를 씨서드리기 위해서 시원한 해양특집호(海洋特輯號)를 만드럿슴니다 로산(鷺山)의 동양의 해도설화(海島說話)는 신비로운 해도(海島)의 력사적 자최를 더듬고 차상찬(車相瓚)씨의 리충무공 삼대해전기(李忠武公三大海戰記)는 또한 웅장한 해전의 서늘한 맛이잇습니다

더구나 지나간 옛날에 항구(港口)에 남긴 추억은 가지가지 자미로운 글이 만습니다 리효석(李孝石)씨의 C항에 남긴 추억 강노향(姜鷺鄕)씨의상해황포강에 남긴 『유트카』 로시아여자와의 로맨스 채만식씨의 졸업전야에 일어난 자미잇는 이야기 장덕조(張德祚)씨의외로운 동대소숙에사는 한처녀의로맨스 부산항구에 남긴 장문경(張文卿)씨의 술픈 사실 정근양(鄭槿陽)씨의 어린시절의 인천항구의 추억 모윤숙(毛允淑)씨의 원산항구에 남긴자미잇는 로-맨쓰는 모-두 로맨틱한 항구의 술픈이야기가 여거젓습니다

강바담이 스르르 부러와서 옷고음을 훗날리는 항구부두에서 일어난 가지가지 자미잇는 사실은 이조광(朝光) 팔월호의 장관입니다 더구나 아름다운 바다와 거리의 화보(畫報) 시원한 표지는 이사백페이지 잡지의 훌륭한 내용과 한가지로 금상첨화의 장관을 일우고 잇습니다 정가는 여전히 삼십전

異域學窓時代의追憶

鵬程萬里에 心翼을 펴고 憧憬! 希望의 世界로!

꿈조차아롬답든그時節의感懷

사람은 항상 지나간 과거에 대해 아롱 다운 꿈을 가지게 됩니다 더구나 그것이 다시올수업는 화려한 생활이엿다면! 우리는 언제나 만번화생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나간 학생시대! 그것은 엇지지못할 우리의 아름다운 꿈입니다

예게 우리는 지나간 학창시대의 꿈을 다시 추억하야 여러분의 그리운 학창시대의 생활리면을 공개하엿습니다 독일(獨逸)에서 대학시대의 안호상(安浩相)씨의 등산(登山)하든이야기와 또 가장무도회(假裝舞蹈會)에 갓든일이며 한승인(韓昇寅)씨의 헐러바호반에서 머슴사리를하며 고학하든일이며 기타리헌구씨, 김용준씨, 박영화씨 여러분의 가지가지화려하고 자미잇게 정철되엿습니다 이는 누구나 한번읽어 그서대를 추억해볼만한것입니다

「朝光」八月號內容

□表紙·바다……安夕影
□港의一齣……李孝石
海洋特輯……그때그港口의追憶……유트카의挽歌……姜鷺鄕
出帆前夜……蔡萬植
燈台속의處女……張德祚
釜山港의녯印象……張文卿
어린時節의仁川港口……鄭槿陽
元山港의남긴約束……毛允淑
東洋의海島說話……鷺友山房主
□水陸二十萬里週遊記(歸鄕篇)……李克魯
□李忠武公三大海戰記……車相瓚
□神秘의國安南의風俗……李鍾模
心頭雜草:貧과富……金石松
特別經濟論文
自由主義經濟의意義……徐椿
列國重壓下의日本貿易……韓普容
鷄共同販賣와自由市場問題……張元俊
商業經營의基礎……韓昇寅
異域學窓時代의追憶
예나大學時節의假裝舞蹈會……安浩相
白頭舍와白鬼祭……金瑢俊
세사람찻는苦生사리……朴英熙
헐러바湖邊의머슴사리……韓昇寅
孤寂한괴에로의獨白……李軒求
京都의三年……金煥泰
畫報
『구라비아』대는호흡한다、舊文明生物의그림자여! 新文明스피-드의追力라고갑시다스피-드업는먼곳에서오신분
特別時事論文
回亞剌比亞民族鬪爭……咸尙勳
□시리아獨立承認과그歷史的意義……金翰容
□中央西南의軍事對立과其政治的意義……李元坤
音樂과演劇
現代佛蘭西音樂……金管
素人劇의實際와그의指導……金二三
衛生과家庭
□病患者의硏究……李榮俊
□婦人病과그療法……朴大陽
□童心硏究……李永哲
□夏節의朝鮮料理……閔惠植
世界올림픽마라손豫想記……周王山
내가잇지못하는그山·그江
鷄龍山……李軒求
金剛山과大同江……李石薰
楊子江과金剛山……李明暉
金剛山……高憲東
鴨綠江과奧萬物……徐元出
咸鏡嶺……孫晋泰
白頭山……金尙鎔
大同江과帝釋山……金基鎭
海蘭江과江陵江……李軒求
鴨江과富士山……姜在鎬
妙香山과香山川……李一
氷海江과白華山……安在鴻
리인江과일포스山……李克魯
洛東江과俗離山……宋錫夏
石橋……方鍾鉉
大同江과金剛山……金福鎭
楊子江과金剛山……安浩相
金剛山과漢拏山……李德鳳
□메-러制實施와勞働爭議(直相)……玄龍峯
□悲戀의妓生눈물의手記……崔玉姬
隨筆
어비러타偶草人種……卞榮晩
一年넘어기른花草……金永羲
老人亭……李秉岐
消夏隨筆……車靑吾
文藝隨感(二)……李箕永
◇社堂牌……白花郞
民俗과野談
□鬼神도울릴鄭古玉……申鼎言
□朝鮮姓氏로맨스(徐、會、吳、卜、權)……壽春山人
□新版傳李澄玉……史外山人
消息……漢陽水大砲……崔永秀
마심·고-리키-를말함·創作小說特輯……咸大勳
中篇小說 川邊風景……朴泰遠
短篇小說 薔薇……安懷南
短篇小說 술……金東里
中篇小說 저무는故鄕……姜鷺鄕
長篇小說 純情海峽……咸大勳
探偵小說 明眸有罪……李軒求
戲曲 姊妹……柳致眞

創作小說

무게잇는 창작 소설을 항상 대량으로 게재하야 문예잡지이상의 임무를 다하고잇는 조광(朝光)잡지는 이번호에도 대작품을 일곱편이나 실리엇다 이제이것을 소개하면

川邊風景……朴泰遠
薔薇……安懷南
술……金東里
저무는故鄕……姜鷺鄕
純情海峽……咸大勳
明眸有罪……李軒求
姊妹……柳致眞

등 참으로 훌륭한 작품만이 나열되엿다 이것만으로도 정가 삼십전이상의 가치가 잇슬것이다

빗나는野談과隨筆

어느때나 독자대중의 요구를 받으면서도 항상 그지도적 임무를 수행하고잇는 조광(朝光)은 일반의 흥미를 도웁고저신정언(申鼎言)의 야담 귀신도울릴 정고옥(鄭古玉)이란 글을실려 더위를 물리칠시인한글을실엇스며 조선성씨(姓氏)의 로맨스로 이번은 (徐、會、吳、卜、權)등 제성씨의 자미잇는 로맨스를 실려 또한 흥미를 끌고잇다 더구나 이번은 자미잇는 수필이 여섯편이나 실렷스니 첫재로 매월 계속하는 김석송(金石松)의 심두잡초(心頭雜草)『貧과富』며 변영만(卞榮晩)씨의 어비러타偶草人種、김영희(金永羲)씨의 一年넘어기른花草며 또리병기(秉岐)씨의 老人亭、차청오(靑吾)의 여름서울이야기、리기영(李箕永)씨의文藝隨感등은 모-두 이무더운여름날 척서잡자미잇고 시원한글이다

特別時事論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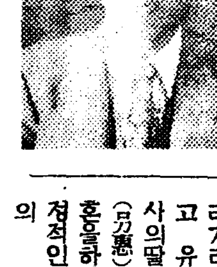
세계정국을 알려면 조광(朝光)잡지 한권이면 알수가잇다 거긔는 정치경제일반에 궁하여 전면적으로 널리해설비판하야 누구나 다흥미잇게읽을수가 잇게 쓴명논문만이 실리엇다

特別經濟論文

이제 팔월호만보아도 서춘(徐椿)씨의 自由主義經濟의意義 한보용(韓普容)씨의 列國重壓下의 日本貿易가튼 대경제론문과 장원준(張元俊)씨의 鷄共販問題와 自由市場問題가튼 실제적인 조선산업문제며 처음장사하는 이를위한 한승인씨의 론문등 모-두 현실사회에 잇서서 적절한 논문이다。그리고 함상훈(咸尙勳)씨의 亞剌比亞의 民族鬪爭이란 서사론문이며 김한용(金翰容)씨의 씨리아의 獨立承認과 리원곤(李元坤)씨의 中央西南의 軍事對立과 政治的意義란논문은 모-두 실의잇는 권위적 논문으로 이것을 읽지안코는 세계를 운위할수업다。

脫※線※된※靑※春※軌※道

失戀의傷痕을안은 妓生崔玉姬의血淚記



『긔생도 사람이다! 긔생도여서 이다!』 이한마듸 말은쓰리고 압픈 실연(失戀)의 상처를안고 병상에 누은 기생 최옥희(崔玉姬)의 말이다

비록 사회제도의 탓이랄가? 운명의 탓이랄가? 긔구한 우슴과 노래를 파는 기생은 되엿슬지언정 순정에 사모치는 정열을 참을길이업서 그는 한 남성을 사랑하엿건만 그 남성은 옥희가 긔생이라는 천한 계급의 여성이라는 한 조건만으로 굿게굿게 매젓든 꿈을 밤마다 쓰린 실연의 칼을 꼬자노코 말엇다

물론 옥희도 처음에는그 문제의 주인공 김상한(金相漢)군을 그저 한손님으로 대햇든것이 나종에는 사랑으로 변하여 주주 야야 사모치는 연정을 끌수업게 되자 또 두사람은 자연히 를 보자 그 만 눈이뒤집혀그 옥희게 약속한 깁고 깁흔 『사랑도 장차 결혼하려고 매젓든 그 구든배년가약도 매일매야 만나서 김혼사랑의 속삭임을 하는동안 어느듯 결혼을하여 남부럽지 안흔 살림을 하려든 꿈조차 그들가슴에 서리게 되엿다한다

(사진상은 김상한군 하는 최옥희)

그리든것이 상한군은 돌연히 량가의 령량 류령해 든 사랑도페리가리 버리고 유일선목사의딸 영헤(刃惠)와 결혼을하여 순정적인 옥희의 가슴에 꿈속가치 해소해버리고그여 섯과결혼을하엿다 그리자옥희는 다만슬혼사정과 차듸찬 물결만이 그의 가슴속에 호르고잇게되엿스니 자한번간님을 보낸뒤에 도라올길 업는 그이를 생각하든 옥희는 병상에 혼도되지안흘수가업섯다한다 조광(朝光) 팔월호에는 이 최옥희 자신이 눈물로역근 슬픈 수긔(手記) 가실렷스니 이것은 너무도 천대밧는긔생계급에잇서서의 한 만흔 유한의글이다

鴛※鴦※甘※夢※는※가※다※!

一千萬女性의面鏡·家庭과街頭의女性에게보내는炎天의銷夏帖

書報 첫아기나흔이의자장가

八月은水神의愛人

美와힘

音界女流音樂家群像……金管

어처지지안는情景……盧天命

바다의情熱……白鐵

農村……金午易

京城府太平通一丁目一六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振替京城八七八五

定價十錢 送料一錢

表紙와扉畫 安夕影畫

小說과이야기

柘榴……李孝石

瀕死의白鳥……咸大勳

푸른눈……李源朝

그리운안해……自晏

콩트選集……諸氏

女性 八月號

두人生

實話 生을咀呪하는S孃

명랑하게사러봅시다……朴奉愛

女流文人自働車橫走

毛允淑·李善熙·張德祚諸氏가自動車를타고處女로 다시도라와無軌道心境까지橫走하는珍記事

여름성적化粧은 내秘密 文壇諸氏

萬里異域에게신님

玄濟明氏婦人 柳형基氏夫人 李寅善氏婦人 金善琪氏夫人의戀慕記

自然과女性心境

女流文人諸氏가여름에自然에서바든心境을吐露한玉筆의告白

이한여름을어느곳에서보내시렵니까

사나히는아모곳에나갈수잇지만녀자가이여름을어듸가서보내나 女流名士들의樂土의公開

美人과裸体美

여름이되니女子의裸體美를이야기하게됨이우수운일이아니다 美人은얼골만어엽버도안된다 이一文을보면美人될수잇는것을發見

海水의魅力「水泳」

바다여 여름은 사람을부른다 그러나 사람에따라 바다가조흔이가잇고 남분이가 잇다 들여기에모두 만된다……申允惠

一席話 미더운世界出現 李殷相

결혼한누이에게 鄭槿陽

女性消息 世界女性의消息 其他興味實益記事滿載